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오늘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 공부하십시오.

로마서 10 : 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서 10 : 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신앙 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신앙 생활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사실을,

디모데전서 1 : 15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 : 8 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베드로 사도는(전서 2:2) 하루 하루의 삶을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고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 부분에 걸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각 개인이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점검하고, 구원의 확신을 새로이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먼저 구원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회복됨으로 인하여, 심판에서 제외되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요한 복음 5:24 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 :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생을 예수님과 똑같은 분인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시게 함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도 영생을 갖게 하셨습니다.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후에 있을 백보좌 심판을 의미합니다. 불신자는 백보좌 심판 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마귀와 함께 불못에 영원히 던져 집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런 심판으로 가지 않고 새하늘과 새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누리면서 영원히 삽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회복됨으로 인하여, 심판에서 제외되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길래 바른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넓고 높은 장벽이 있어서, 이 장벽 때문에 하나님께 소리쳐 불러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아무리 가려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넓고 높은 장벽이 죄의 장벽입니다. 이 죄의 장벽을 없애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 하기에 앞서, 우리의 죄에 대해 이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말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선량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도덕적 정당성을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적도 없으며, 오히려 남을 도와 주며, 선하게만 살아 왔는데 왜 내가 죄인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인용한 디모데 전서 1 : 15 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착하고 선하게 세상을 살아오신 분들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 가지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하게 살아 온 것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일까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분은 한국의 모대학 교수였다가 퇴직하신 분입니다. 이 분이 말하길 인심이 천심이라 하면서, 자기는 천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보증수표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가더라도 좋은데로 간다고 하였습니다. 일평생 선하게만 살아 왔기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의(롬 10:3)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인간의 의입니다. 이런 인간의 의로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사람에게 물어 봤습니다.

“선생님은 남을 미워한 적 없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길,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한번도 남을 미워하지 않고 살수 있어요?”

“거짓말 한 적은 없습니까?”

“아니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한번도 거짓말을 안하고 살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 봤습니다.

“탐심을 느껴본 적 없습니까?”

“아니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한번도 탐심을 안 느끼고 살수 있어요?”

저는 한번 더 질문해 봤습니다.

“사촌이 땅을 살 때 배아파 한적 없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벌컥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죄를 안 지고 살수 있단 말이요?”

그래서 제가 대답해 드렸습니다.

“성경은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와 같다고 말했고, 탐심은 우상 숭배 죄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인간의 의로 의롭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자로 재볼 때, 선생님의 죄는 트럭으로 밤새 퍼 날라도 다 퍼 나를 수 없습니다.

이 죄의 장벽이 하나님과 선생님 사이를 가로 막고 있습니다. 큰 죄다 작은 죄다 하는 것은 인간의 자로 쟀 때 큰 죄 작은 죄이지, 하나님 앞에선 큰 죄나 작은 죄의 구별이 없습니다. 또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선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면 죄에 대한 심판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는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선, 구원받지 못한 심판의 상태를 이해하면, 구원에 대해 실감 있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저는 오래 전 박 영문이라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tape 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하면, 당연히 그랬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정반대로 예수라면 ‘예’ 자도 싫어하는 막가는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tape 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술을 많이 먹어 목이 쉰 사람 같은 인상을 줍니다. 이 박 영문이라는 사람은 술을 많이 먹어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처갓집에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일을 저지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머님이나 뵙고 일을 저지르겠다고 하면서, 시골에 어머님을 뵙러 내려갔었다고 합니다. 어머님을 뵙고 집을 떠나려 하던 날, 기차 출발 시간 한시간 전에 시간이 조금남아 눈 좀 부치겠다고 누웠다가 천국과 지옥을 방문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상의 시간으로는 약 한 시간동안 천국과 지옥을 방문하면서, 거기서 보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에게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신앙 좋았던 자기 외삼촌을 보았고, 지옥에서는 자기 아버지와 자기의 시골 동네 교인들 중 어떤 사람을 보았습니다. 지옥에서 본 자기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끔찍하였다고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어찌나 싫어했던지, 부정을 탄다고 소금을 뿌리는 것은 예사 일이고, 자신의 큰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하고 집에서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술을 많이 먹어 간 경화로 몸이

통통 부어 죽었는데, 지옥에서 본 모습은 죽을 때 모습 그대로 몸이 통통 부어있을 뿐 만 아니라, 뱀들이 몸을 감고 물어뜯고 있는 처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런 지옥의 처참한 모습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 : 48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마가복음 9 : 49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또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았으나, 저 세상에서는 불꽃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부자, 다시 회개할래야 할 수도 없고, 모든 기회를 **다 상실 당한** 부자에 대해서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후의 세계에 대해 말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히브리서 9 : 27)**” 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서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은, 죽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살 때** 결정하는 것입니다. 죽고 난 후에는 오직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권합니다.

그러면 이런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바울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디모데전서 1:15)고 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지옥 불에 던져질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을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을,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상에서 퍼부으셨습니다. 온 세상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퍼부어진 이 심판이, 어찌나 고통스러웠던지,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전 생애에서,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예수님과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계실 그 시간만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담이후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예수님께 퍼부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는 무서운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대신하여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사실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 : 5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 : 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부셔졌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회복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그의 피로 인하여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엡 1:7).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의 모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삼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은 후 다시 살 수 없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삼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자신의 부활하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이 죄없으신 증거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확증합니다.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영생을 주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갈 때 우리는 성경의 내주로 인하여 영생을 소유하게 합니다. 성령의 내주로 인하여 예수님 안에 있던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은 영생과 부활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영생과 부활입니다. 부활의 생명인 영생과, 육체의 부활이 현세와 내세의 삶의 핵심입니다. 현세와 내세의 다른 점을 지적하는 핵심입니다.

다른 점을 오늘은 이 부활의 생명인 영생과 육체의 부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 복음 11 장에는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전갈을 받으셨지만,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 사이 나사로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 때서야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사일이나 지나 버렸습니다.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있던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 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 : 21 ---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요한복음 11 : 22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1 : 23 ---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요한복음 11 : 24 ---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때 예수님께서서는 장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 : 25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 : 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여기계신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보화를 다 팔아서라도 이것을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닙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구절은 육체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시 있을 육체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인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생에는 사망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죽었던 영에 영생이 들어와 죽은 영이 살아 일어나는 영적 부활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 할 때 우리 안에 거하는 영생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육체의 부활이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인 영생과 육체의 부활의 관계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로마서 8 : 11 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는 이 말은, ‘영생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과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롬 8;11 은, 영생이 여러 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 분 안에 거하시는 영생으로 말미암아, 여러 분의 죽을 육체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임어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가라 하기에, 천국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백화 요초가 만발하고, 금빛 찬란하며, 열두 진주 문이 있다고 하더랍니다. 임어당이 하는 말이 천국이 그런 것이면 그렇게 애써서 갈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꾸며 놓고 살면 그것이 천국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 미국의 어떤 부자가 살던 집을 T.V 에서 보았습니다. 집 주위에 온통 백화 요초가 만발하여 있고, 집안팎을 금장식과 은장식으로 으리으리하게 덮었습니다. 이런 집에서 사는 사람에게 천국은 백화 요초가 만발하고, 금빛 찬란하며, 열두 진주문이 있다고 해봤자 먹혀 들어 가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그렇습니까?

내세의 삶에 대한 본질적 설명이 없이 가시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늘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재림시에는 변화된 몸을 가지고 신천신지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이 이런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구원되는 그 때엔 눈물도 근심도, 사망도 저주도,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습니다. 다시 밤이 없으며,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항상 비취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계시록 22:5)하리라고

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 : 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요한계시록 22 : 5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세상에 살 때 이런 구원을 준비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 : 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서 10 : 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이라고 믿음으로
시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음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을 때 의에 이르고,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릅니다.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그 고백이 구원을
확실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저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 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 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